

2023  
고2 연매  
미래엔

## 고2 언어와 매체 미래엔 | 2(1)(2) 음운의 변동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최다 빈출 유형 1

사례에 적용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하거나,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환경을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된소리되기’와 같은 음운 변동의 경우,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여럿이므로, 이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시 환경을 분석하거나 사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세부 항목들인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같은 항목의 적용을 받은 것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보기>

-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갈증, 열정, 말살, 발동
- ② 삼다, 안다(抱), 젊다, 더듬다
- ③ 발사, 절도, 길가, 몰상식
- ④ 닭장, 값지다, 꽃다발, 먹었다
- ⑤ 할 적에, 갈 곳, 할 도리, 만날 사람

2.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밑줄 친 부분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음운의 첨가]

‘음운의 첨가’란 원래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다시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여름’이 [한녀름]으로 발음되는 경우. 이는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ㄴ 첨가’이다.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데, 이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며 ‘잇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준다.

<보기 2>

- ㉠: 그는 ㉡빗물이 제대로 빠지도록 흙을 파놓았다.
- ㉢: 어제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잤다.
- ㉤: 그녀는 최고 가지런한 ㉥아랫니를 자랑하는 미녀이다.
- ㉦: 그는 그녀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훌연히 떠나버렸다.
- ㉨: 어머니는 ㉩깻잎으로 장아찌, 전 등의 요리를 해주셨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으로 시작된 파생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었다.
- ② ㉡에서 앞말의 종성인 비음 ‘ㅇ’의 영향으로 뒷말의 ‘약’에 유음화가 일어났다.
- ③ ㉢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친 뒤, 뒷말의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었다.
- ④ ㉣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된 파생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소리가 한 번만 첨가되었다.
- ⑤ ㉤는 합성어로 ‘음운의 첨가’ 중 앞말과 뒷말 사이에 최종적으로 ‘ㄴ’ 소리가 한 번 첨가된 ‘ㄴ 첨가’로 볼 수 있다.

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한자어에서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유형

	㉠	㉡	㉢
①	맑다	넓다	불법
②	국밥	끓다	일시
③	밟다	앉다	굴곡
④	잡다	닭다	갈증
⑤	곱셈	할다	갈등

3. <보기>의 ㉠, ㉡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 보 기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뿐이다. 음절 끝에 이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 자음 축약: 예사소리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ㅃ, ㄸ, ㅉ, ㅋ’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① 덮밥                      ② 많다                      ③ 굳히다
- ④ 밝히다                    ⑤ 비롯하다

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ㄱ,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다. 된소리되기

5. <보기>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담력→[담녁]
- ㉡ 칼날→[칼랄]
- ㉢ 훑는→[ ㉠ ]→[ ㉡ ]
- ㉣ 앞마당→[암마당]→[암마당]
- ㉤ 한여름→[한녀름]

- ① ㉠은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② ㉡은 비음이 인접한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뀐 현상으로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과 동일하다.
- ③ ㉢의 ㉠에서는 음절 끝 겹받침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교체가 일어난다.
- ④ ㉣로 미루어 보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비음화보다 먼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 ⑤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로 ‘담요, 숨이불’이 있다.

6. <보기>의 ㉠에 속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와 다른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 자음을 두 개 발음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다른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 단순화와 더불어 다른 음운 변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 ① 닭+이→[달기]
- ② 활+다→[할따]
- ③ 읊+다→[읍따]
- ④ 밭+는→[밭는]
- ⑤ 닭+는→[달른]

7. <보기 1>의 ㉠~㉤에 대한 <보기 2>의 반응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보기 1>

- ㉠ 앓는[알른]
- ㉡ 잡았다[자밭따]
- ㉢ 흙일[흥닐]
- ㉣ 간편하게→간편케
- ㉤ 발야구[발랴구]

<보기 2>

- ㄱ. ㉠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적용된 예로 '앓는[일른]'을 들 수 있겠네.
- ㄴ. ㉡은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구나.
- ㄷ. ㉢에서는 교체와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음운의 수가 늘어났겠군.
- ㄹ.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 ㅁ. ㉤은 용언이 활용할 때 모음 탈락이 나타나는 경우로, 어간 '간편하-'의 끝음절 '하'가 탈락한 '하' 탈락이 되겠구나.

ㄴ. ㉡은 첨가가 일어나고,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와 관련된 음운 변동이 일어났구나.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8.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보기>

음운은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음운이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의 예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ㄹ' 탈락, 'ㅡ' 탈락, 'ㄴ' 첨가, 자음 축약 등이 있다. 이 중 '국물'은 ㉠이/가 일어나서 [궁물]로 발음되고, '뿔'은 ㉡이/가 일어나서 [뿨]로 발음된다.

- ① 값만                      ② 걸문                      ③ 깎는
- ④ 닭고기                    ⑤ 훑는

9. <보기>의 ㉠~㉤을 활용하여 '된소리되기'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꽃다발[꼰따발], 옷고름[옏꼬름], 솔전[솔쩨]
- ㉡ 감고[감꼬], 감기다[감기다]
- ㉢ 점고[점꼬], 삶과[삼과]
- ㉣ 넓게[넙게], 활다[할따]
- ㉤ 말살[말쌀], 허허실실[허허실실]

- ① ㉠을 보니 ‘ㅅ, ㅈ, ㅊ’이 대표음인 ‘ㄷ’으로 교체된 후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군.
- ② ㉡을 보니, 받침 ‘ㄹ’ 뒤에 오는 접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군.
- ③ ㉢을 보니, 받침 ‘ㄹ’ 뒤에 오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하는군.
- ④ ㉣을 보니,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오는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하는군.
- ⑤ ㉤을 보니, 한자어를 겹쳐 발음할 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군.

10. 밑줄 친 단어에 나타난 음운 변동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종로에서 만나기로 했다.
- ②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무 살에 독립을 결심했다.
- ③ 우리가 논이나 개울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새는 백로이다.
- ④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줄넘기 수업을 개설하였다.
- ⑤ 단백질은 카세인을 첨가하여 단백질의 함량을 높인 우유이다.

11. 다음은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된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ㄲ, ㄸ, ㅃ, ㅆ, ㅉ’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음운 현상이다.

된소리되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받침 ‘ㄱ, ㄷ, ㅂ’ 뒤: 역도, 달지, 입고
-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 ㄹ’: 신지, 감다
- 한자어 ‘ㄹ’ 받침 뒤: 갈등, 발전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할 것을, 만날 사람

- ① 잡고                      ② 온통                      ③ 숨다
- ④ 놀잇감                    ⑤ 발바닥

12. 다음은 <보기>의 음운 변동(㉠~㉤) 예시를 ㉠~㉤에서 찾은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 변동>

- ㉠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므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 ‘ㄱ, ㄷ, ㅂ’이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 ㉢ ‘ㄴ’이 유음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는 현상
-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 예사소리(평음)가 된소리(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시>

- ㉠ 같이[가치]                      ㉡ 열여섯[열려선]
- ㉢ 닭앗지[다깁찌]                ㉣ 새벽일[새병닐]
- ㉤ 먹었다[먹언따]

- ① ㉠이 일어나는 예는 ㉡, ㉢뿐이다.
- ②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 ③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 ④ ㉣이 일어나는 예는 ㉠뿐이다.
- ⑤ ㉤이 일어나는 예는 ㉢, ㉤뿐이다.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기출 문제

#### 1. [정답] ③

‘발사, 절도, 물상식’은 한자어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고, ‘길가’는 합성어에서 사잇소리현상이 발생하여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 ① 한자어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 ② 용언 어간의 끝소리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 ④ 음절의 끝소리 ‘ㄱ, ㄷ, ㅂ’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이다.
- ⑤ ‘할 적에, 갈 곳, 할 도리, 만날 사람’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 ‘-ㄹ’이 쓰였으며, 그 뒤에 ‘ㄱ, ㄷ, ㅅ, ㅈ’이 이어져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 2. [정답] ③

㉞는 구체적으로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어 두 번째 음절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는 다시, 사이시옷(‘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교체된 후,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① ㉞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로 시작된 합성어이기 때문에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었다.
- ② ㉞는 [두통낙]과 같이 발음하며,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ㄴ’첨가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④ ㉞는 [된닐]과 같이 발음하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된 합성어이기 때문에 ‘ㄴ’첨가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⑤ ㉞는 [괘닙]과 같이 소리 나며 합성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발생해 앞말에 사이시옷을 넣어 표시한 사례이다. 따라서 ‘음운의 첨가’ 중 앞말과 뒷말 사이에 최종적으로 ‘ㄴ’ 소리가 두 번 첨가된 ‘사잇소리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3. [정답] ⑤

‘비롯하다’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이후 ‘ㅎ’과 만나 자음 축약이 일어나 [비로타다]와 같이 발음된다.

- ① ㉞과 ㉟ 중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난다.
- ② ㉞과 ㉟ 중 자음 축약만 일어난다.
- ③ ㉞과 ㉟ 중 자음 축약만 일어난다.
- ④ ㉞과 ㉟ 중 자음 축약만 일어난다.

#### 4. [정답] ④

‘잡다[잡따]’는 ㉞, ‘닭다[담따]’는 ㉟에 해당하며, ‘갈증[갈쯩]’은 ㉞에 해당한다.

- ① ‘맑다[막따]’는 ㉞, ‘불법[불뻘]’은 ㉟에 해당하며, ‘넙다[넙따]’는 어간 받침 ‘래,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② ‘국밥[국뻘]’은 ㉞, ‘일시[일씨]’는 ㉟에 해당하며, ‘꼴다[꼴타]’는 된소리되지 않는다.
- ③ ‘밟다[밟따]’는 ㉞, ‘앉다[안따]’는 ㉟에 해당하며, ‘굴곡[굴곡]’은 된소리되지 않는다.
- ⑤ ‘곱셈[곱셈]’은 ㉞, ‘갈등[갈똥]’은 ㉟에 해당하며, ‘훔다[훔따]’는 어간 받침 ‘래,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5. [정답] ③

㉞의 ㉞에서는 음절 끝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 ① ㉞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ㄹ’이 ‘ㄴ’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비음화에 해당한다.
- ② ㉞은 비음 ‘ㄴ’이 인접한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뀐 유음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㉞에서 ㉞의 [홀는]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 [홀른]과 같이 소리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㉞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ㅍ’이 [ㅂ]으로 교체된 후, 인접한 비음 ‘ㄹ’의 영향을 받아 [ㅂ]이 다시 [ㅁ]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㉞은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여 ‘ㄴ’ 첨가가 일어난 것으로, ‘담요’

숨이불' 역시 'ㄴ' 첨가가 일어나 각각 [담뇨], [숨니불]로 발음한다.

6. [정답] ①

연음 현상만이 일어난 예이다.

② 먼저 첫 음절에서 'ㅌ'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두 번째 음절의 'ㄷ'이 [ㄸ]으로 교체되었다.

③ 먼저 첫 음절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ㅍ'이 [ㅂ]으로 교체되었다. 마지막으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두 번째 음절의 'ㄷ'이 [ㄸ]으로 교체되었다.

④ 먼저 첫 음절에서 'ㄹ'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 'ㅂ'이 [ㅃ]으로 교체되었다.

⑤ 먼저 첫음절에서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며, 이후 유음화가 일어나 'ㄴ'이 [ㄹ]로 교체되었다.

7. [정답] ③

ㄱ. ㉠에서는 첫 음절의 받침에서 'ㅎ'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이후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잃는 [일른]' 역시 첫 음절의 받침에서 'ㅎ'이 탈락한 다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났다.

ㄴ. ㉡은 [자받다]→[자받따]와 같은 음운 변동을 거쳤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라는 두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ㄷ. ㉢은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가 일어났으며 ㉣은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은 'ㄴ' 첨가,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ㄹ. ㉥은 'ㄴ' 첨가가 일어난 후, 유음화에 대한 표준 발음법 제20항의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의 적용을 받아 [발랴구]와 같이 발음된다.

ㄷ.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ㄹ'이 탈락한 다음, 'ㄴ' 첨가로 음운이 하나 늘어났으며 마지막으로 비음화라는 교체가 일어났다. 따라서 음운의 수만 고려하였을 때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ㄹ. ㉧은 축약형에서 'ㅎ'과 '게'가 결합하여 'ㄱ'으로 소리 나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하며, '하'가 탈락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8. [정답] ①

우선, ㉠은 'ㄹ'의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교체되었으므로 비음화이다. 그리고 ㉡은 종성 받침의 자음군에서 'ㅅ'이 탈락했으므로 자음군 단순화이다. 이와 같은 음운 변동이 모두 일어난 것은 '값만 [감만]'이다. '값만'은 우선 자음군 단순화로 [감만]이 되며, 이후 비음화가 적용되어 [감만]과 같이 소리난다.

② '결문[건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 사례이다.

③ '깁는[깁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 사례이다.

④ '닭고기[닥꼬기]'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사례이다.

⑤ '훈는[훈른]'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가 적용된 사례이다.

9. [정답] ③

㉢의 '젊고[점꼬]'는 받침 'ㄹ' 뒤에 오는 'ㄱ'이 된소리인 'ㄱ'으로 교체된 사례이다. 하지만 '삼과[삼과]'에서는 이러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용언의 어간 받침 'ㄹ' 뒤에 오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① ㉠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인 'ㅅ, ㅈ, ㅌ'이 대표음인 'ㄷ'으로 교체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후에 이어지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② ㉡의 '감고[감꼬]'는 'ㄹ'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이어지는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된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된소리되기가 '감기다[감기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용언 받침 'ㄹ' 뒤에 접사 '-기-'가 올 경우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오는 어미의 예사소리 'ㄱ'과 'ㄷ'이 모두 된소리로 교체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오는 어미는 된소리로 발음함을 알 수 있다.

⑤ ㉠은 ‘ㄹ’로 끝나는 한자어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한자어가 겹쳐 발음되는 ‘허허실실[허허실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어를 겹쳐 발음할 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0. [정답] ④

‘줄넘기’는 [줄럼끼]와 같이 발음하며, 유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① ‘종로’는 [종노]와 같이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② ‘독립’은 [동닙]과 같이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③ ‘백로’는 [뱅노]와 같이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⑤ ‘함량’은 [함냥]과 같이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11. [정답] ③

‘숨다[숨따]’는 ‘ㄹ’로 끝나는 어간 ‘숨-’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인 ‘ㄷ’이 [ㄸ]으로 교체되었으므로, ㉠에 해당한다.

- ① ‘잡고[잡꼬]’는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② ‘온통[온통]’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놀잇감[노린깜]’은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 ⑤ ‘발바닥[발빠닥]’은 합성어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사례이다.

12. [정답] ①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예시>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은 ㉠(‘ㅅ’→[ㅆ]), ㉡(‘ㅃ’→[ㅆ])와 ㉢(‘ㅃ’→[ㅆ])가 있다.

- ② ㉣은 비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예시>에서 비음화가 적용된 것은 ㉠(‘ㄱ’→[ㅇ])뿐이다.
- ③ ㉤은 유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예시>에서 유음화가 적용된 것은 ㉠(‘ㄴ’→[ㄹ])뿐이다.
- ④ ㉥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예시>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예는 ㉠(‘ㅛ’→[ㅟ])뿐이다.

⑤ ㉠은 된소리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예시>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예는 ㉡(‘ㅈ’→[ㅉ]), ㉢(‘ㄷ’→[ㄸ])뿐이다.

13. [정답] ②

‘신고[신꼬]’는 ㉣에 해당하지만, ‘믿지[믿찌]’는 ㉠에 해당한다.

- ① ‘국밥[국뺨]’, ‘문다[문따]’는 음절의 끝소리 ‘ㄷ, ㅂ’ 뒤에 오는 ‘ㄷ, ㅂ’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③ ‘갈등[갈똥]’, ‘발전[발쩍]’은 한자어에서 ‘ㄹ’ 뒤에 오는 ‘ㄷ,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④ ‘먹을 것[머글꺼]’, ‘할 바[할빠]’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 ⑤ ‘신발을 신기다’에서 ‘신기다[신기다]’는 ‘신다’에 사동 접미가 ‘-기-’가 결합한 것이므로, ㉠에 따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14. [정답] ①

‘맨입[맨닙]’, ‘삿일[상닐]’은 ‘맨+입’과 ‘삿+일’이라는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며, 소리 나는 과정에서 ‘ㄴ’이 첨가되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콧날[콘날]’, ‘깟잎[깡닙]’은 ‘코+날’, ‘깨+잎’이라는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합성어에서 각각 ‘ㄴ’과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② ‘숨이불[숨니불]’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아랫니[아랜니]’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밤길’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으며, 대신 [밤꺨]과 같이 소리 나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담요’ 역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두통약[두통낙]’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베갯잇[베갠닐]’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칼날’과 ‘웃깃’은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식용유[시공뉴]’는 ㉠의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랫니[아랜니]’는 ㉣의 사례에 해당하며, ‘춧불[츨뿔]’과 ‘물가[물까]’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모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은 ‘신여성[신녀성]’은 ㉠의 사례에 해당한다.

서지정보

저자 김혜린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3999-4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20110

가격 1500원

